

이선영 미술평론: (2011 아르코미술관 전문가워크숍)

이선영의 작품에는 반짝이고 투명하고 매끈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은 파괴되고 있으며 파괴시킨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매체는 변형과 죽음을 기록한다.

다리, 차, 의료기 같이 인간을 보호하고 편리를 극대화시키는 현대적 사물들은 기능을 상실하고, 심지어 인간을 위협한다. 깨져서 날카로워진 사물과의 접촉은 두려움을 자아낸다.

[로덴키르헨의 다리]는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다리가 깨진 모습을 찍어 재구성한 것으로, 지시대상을 재현하는 사진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세계를 보는 투명한 창 또한 깨뜨린다. 깨진 자국과 풍경이 중첩되는 배치에서 풍경을 이루는 지반이나 기층은 무너진다. 사고 난 차를 광내고 광고 사진처럼 찍은 [폐차]는 처음 생산 되었을 때의 번쩍거리는 모습을 다시 갖춘다. 그것은 생산과 소멸의 주기가 점차 빨라지는 상품을 떠오르게 하며, 속도의 문명에 내재된 죽음의 그림자를 예시한다.

의료 기기가 가득한 병원을 모습을 담은 [폴리클리닉]은 건강과 정상에 대한 강박관념이 불러오는 죽음과 이상이 도처에 편재한다. 기계에 둘러싸인 문명의 이물감은 매체의 투명성을 교란시키려는 작가의 태도와 연결된다. 구식 스캐너를 개조한 사진기로 찍은 몸은, 어두운 몸을 날날이 드러내려는 임상의학적 시선을 무화시키고, 불투명해진 언어의 물질성 속에서 몸의 징후와 증상, 흔적들을 담는다.